

가정관리학에서 ‘공공가정론’의 위치와 전개방향

The Position and Perspectives of Studies in 'Institutional Household Management' in the Family Resource Management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강 사 : 宋 惠 林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Dr.occ. Hye-Kim, Song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가정이 사적인 개별가정과 마찬가지로 가정관리학의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소개하고, 가정관리학에 있어서 공공가정론이 갖는 의미와 그 전개의 방향성에 대하여 모색하는 데 있다. 또한 공공가정론 연구의 도입과 적용을 통하여 공공가정을 관리하는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가정관리학의 연구영역이 확대되고 취업에의 가능성이 증대되며 동시에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공공가정론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 서 론

본 연구는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국내 가정학 및 가정관리학의 연구영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공공가정’¹⁾과 그것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공공가정론’을 소개하고, 가정(관리)학에 있어서 공공가정론의 의미와 발전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가정론은 특별히 독일의 가정관리학에 있어 중요한 연구영역의 하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업전망과 사회에의 공헌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가정론이 국내 가정관리학 분야에 주는

시사점과 그 적용 및 발전 가능성을 논의할 필요가 대두된다고 하겠다.

가정은 보편적으로 부양활동, 양육활동 및 교육활동(이하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부양활동’으로 지칭됨), 즉 넓은 범주에서의 가사노동을 통하여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관이다.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원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는 생계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과 임금노동, 교육활동, 여가 등 거의 모든 활동들이 가정을 중심으로 시간적, 공간적인 일체성을 갖고 행해졌던 데 비해, 현대사회의 가정에 있어서는 가지고 있던 다양한 기능이 가정 외부의 사회적 기관에게 이전되고 있다. 이는 동시에 개별적인 가정구성원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확대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복지사회’의 이념이 대두된다. 즉

1) ‘공공가정’이라는 명칭에 대한 설명은 본문 [공공가정의 개념] 부분에서 더욱 상세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개별구성원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부양활동이 다양한 이유, 조건으로 인하여 더 이상 개별가정을 통해 제공되지 못할 때나 혹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수행될 때, 국가사회는 그 상 실되고 결핍된 가정의 부양활동을 인간성 주체의 복지체계를 통하여 지지, 보충 그리고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부양활동이 양적, 질적으로 얼마큼 사회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복지사회를 구성,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상실되거나 결핍된, 그리고 보완되어야 할 가정의 부양기능을 공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공공가정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공공가정에서 제공되는 활동이 가정의 부양활동적인 목표와 성격을 띠는 점에서, 그리고 그 일차적 목표가 영리추구가 아닌 욕구충족이라는 점에서 가정을 관리, 경영할 때 요구되는 다양한 관점과 이론을 필요로 한다. 바로 이점에 공공가정을 연구하는 공공가정론이 가정관리학 분야에 포함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제시되는 것이다.

한편 가정학 및 가정관리학은 학문의 성격상 가정생활과 사회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시에 변화하는 사회문화에 적응하고 그것을 이끌어 나갈 전문인을 양성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 앞으로 사회가 더욱 분업화, 전문화되어가고 또 핵가족화 될수록 공공가정이 더욱 증가하리라고 예측되며, 그에 따라 그것을 관리하는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수요 역시 증가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사회의 수요에 대비하여 우리의 학문분야에서도 그에 대한 준비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가정관리학 전공자의 취업전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가정과 공공가정론에 대한 소개는 가정관리학 분야의 미래지향적 취업전망, 연구영역의 확대 그리고 사회에의 공헌이라는 면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II. 본 론

1. 공공가정의 개념

공공가정은 그 이용자를 대상으로 욕구에 합당한 부양활동을 제공하는 욕구충족기관이라고 정의된다. 때로 공공가정은 제한된 영리추구를 지향하기도 한다²⁾. (Botler, 1986a : 17 ; 1993 : 111). 이러한 정의에 따라 공공가정의 예로서 욕구충족을 지향하거나 제한된 이윤추구를 지향하는 병원, 양로원, 고아원, 장애자나 아동, 청소년을 위한 시설, 구성원의 복지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가족을 위한 숙박시설 등 다양한 기관, 시설, 그리고 그들의 활동을 들 수 있다(Piorkowsky, 1984 : 19).

공공가정의 궁극적이고도 직접적인 목표는 욕구의 충족인데, 공공가정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욕구'라는 개념은, 구체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생활하면서 필요하거나 또는 바라는 부양활동에 대한 원함을 의미한다(Bober, 1984 : 4 ; Botler, 1983 : 114). 따라서 하나의 공공가정이 성립되는 결정적 근거 역시 욕구충족, 즉 부양활동 혹은 부양상태의 유지와 증진의 필요성이다. 그러므로 공공가정의 활동은 인간과 관계된 부양활동을 통하여 그 이용자들을 초기에 비해 개선된 부양상태에 있게 하며, 그것은 생활의 개선, 향상된 활동능력, 증진된 건강상태, 더욱 안정된 자아개념 등으로 결과된다.

그런데 공공가정론을 발전시킨 독일의 경우, Household의 개념은 가계 혹은 가구로 해석하는 우리나라나 일본과는 달리 '가정'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독일의 가정학에 있어서 Household를 논의할 때는 Private Household와 Public Household를 반드시 구분하며, 이 때 private Household는 보편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가정, 즉 가족으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private Household와 Family Household를 동일하게 보고 있다. 그와 대비되는 개념이 public Household 즉 공공

2) 영리추구기관은 보편적으로 그 소유자에게 있어서 자본유지와 자본증식이 그 일차적인 목표가 되는 기관이다. 이에 비해 제한된 영리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관은 부분적으로 사적, 공적인 부양과업을 위임받아 예를 들면 독점, 특허 또는 실패시 원조 등과 같은 형태를 통하여 이윤을 확보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들에 있어서 이윤의 추구는 일차적인 목표가 아니며, 욕구충족을 우선으로 한다(예 : 국영기업)(Oettle, 1987 : 45-46).

가정인데, 이는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그러나 가정의 기능을 갖는 기관으로 개념화된다. 구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부양활동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사적인 가정과 공공가정은 동일하게 '가정'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단지 차이는 그 구성원이 가족원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개념설정에 있어서 많은 다양성을 내포하기는 하지만, 독일의 가정학에서는 '가정'을 보편적으로 인간 혹은 인간집단의 직접적 욕구충족을 위해 관리활동을 하는 사회적, 경제적 기관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v.Schweitzer, 1991 : 139-141) 공공가정을 하나의 가정형태로 이해하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 있어 독일과 우리나라의 문화 그리고 연구관점의 차이를 고려할 때 다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이는 가정의 범주를 어디까지 제한, 확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시각과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공가정의 명칭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가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2. 공공가정과 사적인 가정과의 관계

공공가정은 그 의미와 목표상 사적인 가정의 기능을 지지, 보충, 대체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사적인 가정의 기능을 지지한다는 것은, 가정 내에서의 고유하고 독특한 관리, 즉 개별적인 가정관리를 더욱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적인 가정을 보충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즉, 경제성, 효율성, 기술, 설비 등의 이유로 인하여 개별 가정보다 공공가정이 구성원의 요구, 욕구에 더욱 적합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가정에서 제공되는 활동들은 사적인 개별가정의 부양기능을 확대시킨다는 의미이다.

셋째, 사적인 가정을 대체한다고 할 때의 의미는, 해당자가 다양한 이유로 고유의 개별가정을 일정기간 떠나 있거나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가정의 부양활동을 전적으로 대체하는 기관으로 공공가정이 기능한다는 것이다. 이 때 공공가정의 이용자는 공공가정의 '완전'부양활동을 제공받게 된다(Bott-

ler, 1981 : 208-209 ; Pfau, 1986 : 27).

예를 들면, 청소년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 그들이 받아야 하는 일정수준의 교육과 양육이라는 측면에서, 각 개별가정은 이러한 부양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외부)조건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들은 때로 여러가지 문제상황에서-자녀가 장애자인 경우, 부모가 별거하고 어느 한 쪽도 자녀를 부양할 능력 혹은 의도가 없는 경우 등-이러한 부양활동을 충족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 때 이 개별가정의 부양활동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 즉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양육원, 육아원 혹은 그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과 시설에 의해서 완전히 대체된다. 이 경우 해당자는 일정기간 개별 가정을 떠나 이러한 시설에서 거주하게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유치원이나 병원, 가족활동을 위해 특별히 조성된 수련관, 장애자 수용소 등은 개별가정이 유지할 수 없는 전문인력, 시설, 기술 등의 측면에서 개별가정의 기능을 보충하는 공공가정의 형태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보다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개별가정의 부양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지지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학생, 직장인들에 있어서는 일(공부)하는 장소와 가정 간의 지역적인 분리로 인하여 가정의 부양활동(식사제공, 휴식제공)이 부분적으로 탈락되게 된다. 이 때 급식사, 구내식당, 구내매점, 휴게소 등은 가정의 그러한 기능을 지지, 보충하게 된다(Bauer-Söllner, 1987 : 6-8).

위의 분류를 종합한다면, 사적인 가정을 지지, 보충하는 공공가정의 기능은 하루 중 일정시간동안 부분적으로 결핍된 혹은 요구되는 개별가정의 부양, 양육, 교육기능을 보완해 주는 기능인데 이는 공공가정의 '부분부양'기능으로 지칭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가정의 부양, 양육, 교육활동이 전적으로 상실된 경우 이를 완전히 대체해 주는 기능은 공공가정의 '완전부양'기능으로 개념화된다. 공공가정의 '부분부양'활동을 제공받는 이용자는 동시에 각각의 개별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반면, 공공가정의 '완전부양'활동을 제공받는 이용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개별가정을 떠나 있게 된다(Bottler &

Seel, 1976 : 320-321).

이러한 공공가정과 사적인 가정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이하 Müller & Wiese-Ruckelhausen, 1986 : 23-24 재인용).

첫째, 공공가정과 그 이용자, 그리고 공공가정과 그 안에서 일하는 근무자 간에는 일정한 법적 구속력이 형성된다. 공공가정의 이용자는 정해진 양적, 질적 기준에 따라 공공가정으로부터 일정수준의 부양활동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규칙과 규율에 따라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개별 가정에 있어서는 부양활동의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경계도 불명확하며, 가족원 간에서의 부양활동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또한 공공가정은 그 안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에게 일반적인 노동법의 규칙에 근거하여 근무시간, 임금, 근무조건과 환경 등에 있어서 규칙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며, 근로자 역시 계약조건에 따라 일해야 하는 의무조건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개별 가정에서는 즉 가족원 간에는 계약조건을 거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공공가정은 사적인 가정과는 달리 생식기능, 즉 자녀출산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세째, 사적인 가정은 오늘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구성원 간의 감정체계와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즉 한 가정이 형성되는 기본요건은 소수의 예외적 상황과 문화를 제외하고는 구성원 간의 애정과 신뢰이다. 그러나 공공가정은 여타의 감정이나 관계와는 무관하게 부양활동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외부적인 조건이 허용될 경우 설립된다.

네째, 공공가정에 있어서는 법적인 근거에 기인하여 공식적인 체계의 형성, 유지가 제한된다. 예를 들면 위생법, 병원법 등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인력, 시설, 공간, 설비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사적인 가정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으며, 가정을 구성, 유지하는 세부적인 의사결정은 일차적으로 그 구성원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다.

3. 공공가정의 사회적, 경제적 의미

공공가정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

미를 갖는다.

사회적인 공공가정의 의미는, 공공가정에 의해 제공된 활동의 종류, 양, 질이 그 사회가 구성원에서 제공하여 줄 수 있는 부양의 수준, 즉 복지상태의 수준을 표현한다는 것이다(Pfau, 1986 : 32). 실제로 핵가족화가 더욱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족을 통하여 부양받지 못하는 노인들이나, 장애인 그리고 미혼모가 낳게 되는 아이들 등을 고려할 때 그들의 삶에 있어서 공공가정은 절대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공공가정에의 접근 가능성과 그로부터 제공되는 활동의 수준은 해당되는 이용자나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그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하나의 환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공가정의 혜택을 받는 이용당사자에게 공공가정은 생활의 질을 전달해 주는, 그리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기관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를 지닌다. 동시에 공공가정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공공가정의 활동들은 사회구성원의 미래적인 혹은 잠재적인 위기상태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공공가정은 비단 문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뿐만 아니라, 기존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안전과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삶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공공가정의 경제적 의미는, 공공가정에서 근무하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통하여 취업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공공가정의 활동을 통하여 재화와 용역이 소비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많은 양의 화폐지출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순환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Pfau, 1986 : 31-32).

4. '공공가정론'의 구성

공공가정론은 앞에서 설명된 공공가정을 대상으로 그와 관련된 원리와 이론을 개발, 적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연구분야이다(Botler, 1986c : 36 ; 1987 : 22-23 ; 1993 : 112 비교).

공공가정론에서는 공공가정을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보는데, 이는 공공가정이 사적인 가정과 마

찬가지로 구성원(이용자)의 욕구충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부양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최소한 자원을 배분, 할당, 소비, 사용하는 결정, 즉 자원의 관리에 관한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Follert, 1979 : 228). 따라서 공공가정론에서는 경제성의 원리, 즉 주어진 input으로 최대한의 output을 산출하거나(최대원리) 혹은 산출되는 output에 최소한도의 input을 투입시키는(최소원리) 원리를 중심으로 하여, 투입되는 수단과 자원들 그리고 산출되는 결과 간의 경제적인 계획을 조정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Botler, 1986b : 33). 동시에 공공가정론에서는 공공가정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있다(Botler, 1986d : 39). 따라서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요소들 간의 관계 그리고 요소와 체계 간의 질서 등에 그 연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한편 공공가정론을 구성하는 내용으로는 기초적인 가정관리 이론 외에 총관리, 마케팅, 자료관리, 수행, 인력관리, 재정관리 그리고 통제에 관한 이론을 들 수 있다(Botler, 1982 : 49-51).

이상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공공가정론은 그 기초가 되는 가정관리 이론과 더불어 다양한 인접학문 분야의 원리들을 필요로 한다. 공공가정은 그 시설, 설비, 규모, 운영방법과 예산 등의 측면에서 혈연으로 구성된 개별 가정보다 더욱 조직적, 체계적으로 구성, 조정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경영론과 마케팅의 원리가 가정관리적 관점을 통하여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공가정과 그 이용자 간의 계약관계, 공공가정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의 확립, 회계감사 등의 측면에서 법학분야의 이론도 필요하며, 공공가정을 설립할 때 필요한 공간과 지역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주거학에 관한 지식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 외에 급식관계를 위한 영양학, 공공가정 내에서의 인간관계와 공동생활이라는 측면에서는 사회학과 관련된 지식, 시설관리의 측면에서는 노동과학 등에 관한 기초적 지식이 필요하며 그 밖에 교육학, 의학, 사회복지학 등도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5. 가정관리학에 있어서 공공가정론의 의미와 그 위치

공공가정의 시설과 활동을 통하여 그 이용자들은 가정의 부양활동과 동일한 혹은 유사한 기능, 조건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가정을 관리하는 담당전문가는 개별가정을 관리, 경영할 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원리와 기술, 시각, 적용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공공가정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가정관리학의 이론과 가정관리학적 관점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전제되는 능력이 특별히 가정관리 연구영역의 전문성이다. 즉 아동양육, 가사노동, 주거, 가족관계, 가정기기, 가정경제 등을 총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공공가정론의 경우, 사적인 가정이 아닌 하나의 공식적인 기관, 즉 고아원이나 양로원, 식당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그러한 기관들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경영학의 원리와 이론, 그리고 적용방법 등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가정론이 경영학의 연구영역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관리학 내에서 연구되는 이유는 그 궁극적 목표가 영리의 추구가 아니라 구성원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볼 때 가정관리학에 있어서 '공공가정'은 사적인 가정과 마찬가지로 집중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분야라고 볼 수 있겠다.

독일의 경우 공공가정론은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 가정관리학과 내의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 강의되어 오고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 공공가정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1984년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열린 제 15 차 세계가정학회(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ome Economics)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이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공가정과 관련된 안건을 채택하고 있다(이하 Botler, 1984 : 330-334에서 재인용).

첫째,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가정의 활동을 필요로 한다는 점,

둘째, 공공가정의 부양체제는 이제까지 주로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만 다루어져 왔다는 점 (사실 공공가정에 있어서는 이용자와 근무자에 대한 인성적, 사회적 접근, 즉 공공가정의 활동을 통한 만족감, 상실되고 결핍된 가정활동이 공공가정을 통해 제공됨으로 인한 정서적 측면의 영향 등이 공공가정의 형성배경상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Bober, 1987 : 28-29),

세째, 가정학의 전문인력들은 '생활의 질'과 관련된 다른 중요한 원리들 그리고 학문분야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세계가정학회는 우리들 인간의 생활의 질을 지지하는 체계중 하나인 공공가정과 관련하여 가정학이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이 공공가정(론)에 대한 세계가정학회에서의 문제제기는 가정(관리)학에 있어서 공공가정론의 위치와 의미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공공가정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단계는,

첫째, 사적인 가정과 공공가정의 상이한, 그러나 상호간 연관되는 분야에 대하여 인식했다는 점,

둘째, 사적인 가정과 공공가정에 대한 교육, 연구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

세째, 가정학 연구자들이 공공가정의 의미와 요지를 자각했다는 점, 그리고

네째, 공공가정을 구성하는 원리, 전략, 방법론 즉 '공공가정론'이 가정관리학 연구영역 내에서 개발,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당위성이 제기되었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결과적으로 그동안 사적인 가정과 관련된 원리의 개발과 적용에 집중되었던 가정관리학에 대하여 새로운 자рк요소가 될 수 있으며, 공공가정은 전문적인 연구, 강의에 있어서 사적인 가정과 동등한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표현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6. 앞으로의 과제

공공가정과 공공가정론에 관한 이상의 간략한 설명을 통하여 가정관리학에 있어서 공공가정론의

위치와 중요성이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하겠다. 이제 남은 과제는 앞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과 절차가 필요한가에 관한 논의일 것이다.

첫째,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일은 가정관리학 연구자들이 공공가정론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 가정관리학과 내의 정규 커리큘럼 내에 도입, 개발시킬 것인가를 논의하는 일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공가정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가정관리 전문분야의 연구내용 외에도 다양한 인접학문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영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등에 관한 학점이수를 필수로 하여,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공공가정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교과목의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동시에 요구되는 작업은 공공가정론을 연구, 강의하고 우리나라의 상황과 체제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개발이다. 그것은 물론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나, 미래지향적인 시각과 관점을 통하여 공공가정론 연구자들을 양성, 격려하는 학문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나면, 단계적인 인력의 개발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세째, 아직까지 공공가정과 공공가정론, 그리고 그것이 가정관리학의 연구분야라는 점에 대하여 외부 학문영역들과 사회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활발한 연구와 발표를 바탕으로 공공가정론과 공공가정관리사의 사회적 의미 그리고 그 필요성을 사회에 나타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작업은 사회가 공공가정관리사에 대한 공식적인 자격을 인정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다.

III. 요약 및 결론

이상으로 본 연구는 가정관리학의 연구영역의 확대, 미래지향적인 취업전망 그리고 사회에의 공헌도 등을 중심으로 공공가정론의 의미와 그 전개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공공가정의 개념, 사적인 개별가정과 공공가정 간의 관계, 공공가정의 사회적, 경제적 의미 그리고

가정관리학에 있어서 공공가정론이 차지하는 의미와 위치 등에 관한 설명을 토대로 공공가정은 사적인 개별가정과 더불어 가정관리학의 중요한 연구대상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주로 사적인 가정에만 국한되어 수행된 현재 가정관리학의 연구영역에 대하여 이러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부적으로 현재 가정관리학이 처하고 있는 학문적 위세 그리고 가정관리학이 과연 무엇을 연구하는 분야인가에 대한 인식의 부족, 가정관리학 전공자들의 정체감과 진로문제 등을 고려할 때, 가정관리학이 공공가정론을 도입, 개발하는 일은 실제 가정관리학의 입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정관리학에 있어서 공공가정론의 도입과 개발은 그것이 단기간에, 그리고 소수의 연구자와 대학들의 노력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장기적 안목을 갖고 인력의 개발, 교과목의 조정 그리고 공공가정관리사에 대한 사회적 인정등을 목표로 단계적인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함이 앞으로 가정관리학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일로서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공공가정론이 어떠한 내용과 체계로 구성되며 강의, 연구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는 다음번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1) Bauer-Söllner, B. & Pfau, C.(1987). Bedeutung der Grosshaushalte in der Gesellschaft und für den einzelnen. *Hauswirtschaft und Wissenschaft* 35, 6-8.
- 2) Bober, S. (1984). Der Begriff Grosshaushalt. aus betriebswirtschaftlicher Sicht. In S. Bober, R. Martien, M. Piorkowsky & J. Reiner(Eds.). *Schriften zur Oecotrophologie*. Hamburg : Fachhochschule Hamburg.
- 3) _____(1987). Leistungserstellung in Grosshaushalten-orientiert am Bedarf. *Hauswirtschaft und Wissenschaft* 35, 28-29.
- 4) Bottler, J.(1981). Der Bedeutungswandel der Grosshaushalte in ihrer familienunterstützenden, -ergänzenden und -ersetzenden Funktion. In R.V. Schweitzer(Eds.). *Leitbilder für Familie und Familiepolitik*. Berlin : Pädagogischer Verlag.
- 5) _____(1982). *Wirtschaftslehre des Grosshaushalts-Bd. 1. Grosshaushaltsführung*-. Stuttgart : W. Kohlhammer GmbH.
- 6) _____(1984). Die Grosshaushaltsresolution von Oslo-Einige Anmerkungen zu Entstehung, Inhalt und Bedeutung-. *Hauswirtschaft und Wissenschaft* 32, 330-333.
- 7) _____(1986a). Objekt-und Problembereich der Wirtschaftslehre des Grosshaushalts. In DGH. (Eds.). *Der Grosshaushalt-Konzeption einer sozio-ökonomischen Handlungslehre*-. Gießen : Wiss. Fachverlag.
- 8) _____(1986b). Das spezifische Interesse einer Wirtschaftslehre am Grosshaushalt. In DGH. (Eds.). *Der Grosshaushalt-Konzeption einer sozio-ökonomischen Handlungslehre*-. Gießen : Wiss. Fachverlag.
- 9) _____(1986c). Der Grosshaushalt als Interessenobjekt anderer Fachgebiete. In DGH. (Eds.). *Der Grosshaushalt-Konzeption einer sozio-ökonomischen Handlungslehre*-. Gießen : Wiss. Fachverlag.
- 10) _____(1986d). Der Grosshaushalt als System. In DGH.(Eds.). *Der Grosshaushalt-Konzeption einer sozio-ökonomischen Handlungslehre*-. Gießen : Wiss. Fachverlag.
- 11) _____(1987). Grosshaushalte in der Wirtschaftslehre des Haushalts. *Hauswirtschaft und Wissenschaft* 35, 22-23.
- 12) _____(1993). Der Grosshaushalt in der Wirtschaftslehre des Haushalts. In J.Bottler(Eds.). *Wirtschaftslehre des Haushalts*. Baltmannsweiler : Schneider-Verlag.
- 13) _____ & Seel, I.(1976). Das Leistungsangebot der Grosshaushalte und sein Einfluß auf die Funktionsveränderungen in der Familien- und Haushaltsführung. In R.V. Schweitzer & H. Pross (Eds.). *Die Familienhaushalte im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Wandel*. Göttingen : Verlag Otto Schwartz & Co.

- 14) Follert, B.(1979). Autonome und heteronome Grossshaushalte-Der Versuch einer entscheidungsbezogenen Haushaltstypologie. *Hauswirtschaft und Wissenschaft* 27, 228.
- 15) Müller, M. & Wiese-Ruckelhausen, B.(1986). Merkmale zur Beschreibung von Grossshaushalten und Privathaushalten. In DGH.(Eds.). *Der Grosshaushalt-Konzeption einer sozio-ökonomischen Handlungslehre*. Gießen : Wiss. Fachverlag.
- 16) Oettle, K.(1987). Erfolgsermittlung in Grosshaushalten. *Hauswirtschaft und Wissenschaft* 35, 45-46.
- 17) Pfau, C.(1986). Bedeutung des Grossshaushalts. In DGH.(Eds.). *Der Grosshaushalt-Konzeption einer sozio-ökonomischen Handlungslehre*. Gießen : Wiss. Fachverlag.
- 18) Piorkowsky, M.(1984). Kongreßzentren und Tagungsstätten als Grossshaushalte. In S. Bober, R. Martien, M. Piorkowsky & J. Reiner (Eds.). *Schriften zur Oecotrophologie*. Hamburg : Fachhochschule Hamburg.
- 19) Schweitzer, R.V.(1991). *Einführung in die Wirtschaftslehre des Haushalts*. Stuttgart : Ulmer.